

쌍방울·비비안, 동구에 1억원 상당 제품 기부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주)쌍방울(대표 김세호)과 (주)비비안(대표 손영섭)이 최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며 광주 동구(정장 임택)에 1억원 상당의 자사 제품을 기부했다.

손영섭 비비안 대표와 문정를 쌍방울 이사는 동구청을 직접 찾아 마스크 3만장과 점퍼, 양말, 티셔츠 등 후원물품 3만5000여개를 전달했다. 후원물품은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분배할 계획이다.

손 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이웃들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로 사랑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 이사는 "광주 동구 돌봄 이웃들에게 쌍방울그룹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더욱 행복한 지역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온정이 더 필요한 이웃을 위한 후원이 줄어 걱정이었는데 통 큰 기부를 해주신 쌍방울그룹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도, 새마을회와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전남도도와 전남도새마을회는 지난 13일 해남 황산면 한자리 일원에서 집중호우로 유입된 초목류, 페스티로폼 부표, 양식기자재 등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을 펼쳤다. <사진>

최근 전남에 내린 집중호우로 해남 2618t, 목포 40t, 강진 20t, 진도 20t 등의 해양쓰레기가 유입됐다. 이처럼 해양 쓰레기가 산적한 가운데 15일부터 비 예보가 있어 쓰레기가 바다로 재유입 되지 않도록 신속한 수거에 나섰다.

이날 전남도, 전남도새마을회 회원을 비롯한

해남군 공무원, 바다환경지킴이 등 90여 명은 해남 황산면 한자리 바닷가 일원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들은 떠밀려온 초목류, 페스티로폼 부표 등을 마대 40여 개에 담아 총 25t을 수거했다.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해남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해양쓰레기 피해복구비로 처리할 예정이다. 다른 시·군도 자체 계획에 따라 지속해서 수거활동을 벌인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립대, 현장 교육 강화 위해 LCM에너지솔루션·나주시와 협약



전남도립대(총장 박병호)가 지난 13일 도립대 산학협력단 세미나실에서 (주)LCM에너지솔루션, 나주시와 대학 현장 맞춤형 교육 강화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관 공동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협약식은 박병호 전남도립대 총장, 이병용 (주)LCM에너지솔루션 회장, 이병용 전남도 투자유치과장, 나주시 나상인 미래전략산업국장 등 정진성 한전상생협력처 차장, 박정서 KPH자산운용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이들 대학, 지자체, 기업은 ▲대학과 산업체 간 상호 산학협력 프로그램 구축 및 체계 확립 ▲산업체 현장 실무인력과 대학 전공인력의 상호교류 협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현장 맞춤형 연계 진로특화과정 교과목 개발 및 운영 ▲기술지도 채널 확립, 국책 및 시도 주관 기술개발 과제의 공동 연구 활성화 등을 함께 하게 된다.

(주)LCM에너지솔루션은 리튬이온 배터리팩과 리튬폴리머셀(이차전지) 제조 분야 독자적인 기술과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기업체다. 지난 6월 에너지밸리 혁신산업단지내 제조공장을 착공해 전남도, 나주시와 20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조선이공대, ICT융합과 등 고교진로체험 진행



조선이공대학교(총장 조순계)는 지난 13일 광주 송의과학기술고등학교 스마트드론전자과 3학년 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대학 2호관 스마트팩토리실습실과 전기실습실에서 ICT융합과, 전기과 진로체험을 진행했다.

<조선이공대 제공>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 목포 장애인 금융복지 지원 협약



전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센터장 김재걸·왼쪽)와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최홍희)은 최근 장애인 금융복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 제공>

광주조달청장, 유망 중기 방문



광주지방조달청은 김공진<사진>청장이 지난 13일 지역 유망 중소기업인 담양 휴안주식회사(대표 이흥선)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원자재 가격에 따른 애로와 건의사항을 듣고, 공공 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조경 시설물을 생산하는 휴안주식회사는 광주시 유망 중소기업에 선정되고, 국제품질경영시스템 ISO9001 인증을 받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TV프로그램 1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KBS1	KBS2	MBC	KBC/SBS
00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2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08	25 아침마당		50 이 맛에 산다	35 아모르파티
0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속아도 꿈결(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미치지 않고서야(재)	10 SBS 뉴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열린채널 40 팔도방송 스페셜 55 UHD 스포터	00 빨강 구두 스페셜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5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재)	00 12 MBC 뉴스 20 반짝이는 프리채널 50 뽀뽀보 친구친구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우정방송의 인사투어
13	00 KBS네트워크특선 이리 오나라 조선클럽 50 재난탈출 생존왕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즈 글로벌 동물 뉴스(재) 50 2시 뉴스 외전	45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떠나는 여행 스페셜
14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팡팡 다이노 45 반짝반짝 달남이			00 뉴스브리핑
15	00 2020 도쿄올림픽 특집 다시 보는 대한민국 올림픽 명승부	00 KBS 뉴스타임 10 뽀뽀보(재) 30 TV 유치원	20 푸리가 식사교실(재) 55 기본 좋은 날(재)	
16	00 사사건건	00 누가누가 잘하나	55 5 MBC 뉴스	00 서울 구로 국제 어린이 영화제 폐막식
17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스페셜	00 마카엔로니 15 몬스터 탑 30 농친 예능 따라잡기 50 통합뉴스룸 ET	10 창사60주년 특집 다크플렉스 스페셜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내 고향 전파(재)
18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오매 전라도	50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19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빨강 구두	05 생방송 연금복권 720+ 10 미치지 않고서야(재)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20	30 속아도 꿈결	30 UHD 기후변화 특집 지구의 경고		30 KBC 8 뉴스
2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30 우리가 사랑한 그 노래 새기수	00 미치지 않고서야	00 맛남의 광장
22	00 다크 인사이트 50 더 라이브		20 광주MBC 다크플렉스 핑키피쉬	3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2
23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20 대화의 희열 3	2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50 나 혼자 산다 스페셜	
24	10 이슈 픽 쌤과 함께(재)	50 표리부동(재)		00 제시의 쇼터뷰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미스터리아
05:5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	17:45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글로벌 뉴스	18:00 생방송 방과 후 토크쇼
07:00 로이와 함께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12:10 EBS 부모	19:05 포텐톡
07:15 티시데시	13:00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19:35 자이언트 팽TV
07:30 뽀뽀보 뽀로로	14:10 명당	19:50 신계속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0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05 지식채널e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땡땡땡 유치원	15:15 클래스 e	<세계 문화 답사기 - 먹고 마시고 사랑하라, 체코>
08:30 우당탕탕 은하안전단	15:3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21:30 한국기행 <내 인생에 한 번쯤 4부 구름 위에 살리라>
08:45 한글용사 아이야	15:50 가만히 10분 명TV	21:50 파란만장 <내 인생, 죽기 전에 꼭 한번 구름 위에 살리라>
09:00 시공	16:00 페파 피구	22:45 다시 인생, 죽기 전에 꼭 한번
09:15 봉우야 말해줘2	16:15 한글용사 아이야(재)	23:35 클래스 e
09:30 우당탕탕 아이큐	16:30 땡땡땡 유치원(재)	
09:40 우리집 유치원	16:50 내 친구 문덕이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15일(음 6월 6일 甲子) ☎ 010-9790-8237

<p>子</p> <p>36년생 한 톰포만 늦추면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 48년생 대세에 합류하는 것이 무리가 없고 가장 안전하다. 60년생 활력이 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리라. 72년생 방치했다가는 갈수록 악화 될 수도 있느니라. 84년생 긍정적이고 적극적인이어야만 타개할 수 있겠다. 96년생 생활화한다면 참으로 유용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2, 56</p>	<p>午</p> <p>42년생 처신을 잘 한다면 따르는 이가 많으리라. 54년생 쉬 타운 구들이 쉬 식는 법이 아니라. 66년생 표현 방법에 따라서 설득력의 차이가 크다. 78년생 해결점을 찾으면서 지리멸렬했던 소강상태를 벗어나는 판세에 놓인다. 90년생 투명하지 않다면 문제점을 안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02년생 제대로 보여 줘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 : 25, 90</p>
<p>丑</p> <p>37년생 심오하고 미묘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 입지에 놓인다. 49년생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말라. 61년생 원칙만을 따진다면 합의점을 찾기 힘들다. 73년생 형세에 지배 받지 말고 주체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라. 85년생 완전히 개선하지 않으면 해롭다. 97년생 다양한 방법을 도출해 내어 전방위적으로 모색하라. 행운의 숫자 : 06, 78</p>	<p>未</p> <p>43년생 무리 하다보면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 55년생 선점하지 않으면 아니 되느니라. 67년생 판도를 좌우할만한 결정적인 방도가 절실하다. 79년생 상대는 힌트만 주어도 쉽게 알아들을 것이다. 91년생 정황을 이루는 근본적인 원인부터 쫓아라. 03년생 떠나려는 이를 붙잡지 말 것이며, 찾아오는 이를 막지 말라. 행운의 숫자 : 07, 95</p>
<p>寅</p> <p>38년생 형식을 제대로 갖추어야 기능을 유지하리라. 50년생 길레가 거침없이 펼쳐지리라. 62년생 전문가 중재자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더 낫다. 74년생 기본에 충실했을 때 진행이 차질이 없을 것이다. 86년생 직접 찾아가서 깔끔하게 처리해야 명쾌하리라. 98년생 중형무전 할 것이니 빠뜨림이 많을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22, 73</p>	<p>申</p> <p>32년생 실패하고 있는 것보다는 실행이 더 생산적이다. 44년생 편이에 치우친다면 비능률적인 수밖에 없다. 56년생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백 번 낫다. 68년생 이론보다는 경험을 우선해야 할 때이다. 80년생 듣고 접하다보면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다. 92년생 간헐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시할만한 상황도 아니다. 행운의 숫자 : 44, 66</p>
<p>卯</p> <p>39년생 목전의 진실을 호도하려는 이를 만날 수 있다. 51년생 신용이 자본이 되어 기쁨을 주는 날이다. 63년생 편이한 국면으로 전환 되지는 않겠지만 여지는 있다. 75년생 아예 아니함만 백 번 못 하느니라. 87년생 핵심을 파악하지 않는다면 헛수고에 불과할 것이다. 99년생 주권을 갖고 중심에서 있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14, 94</p>	<p>酉</p> <p>33년생 실제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판세임을 인식하게 된다. 45년생 열린 마음이 있어야 새로운 접하는 법이다. 57년생 틀림없을 것이니 노파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69년생 작은 현상이나 대범하게 넘길 수 있어야겠다. 81년생 유지에 무리함이 따르지 않도록 하자. 93년생 쫓겨온 가진 일관된 언행이 어십다. 행운의 숫자 : 05, 55</p>
<p>辰</p> <p>40년생 기대 했던 바보다 큰 효과를 보게 된다. 52년생 상황이 변하면 대처 방안도 달라질 수밖에 없느니라. 64년생 소홀 한다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76년생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므로 개이지 말라. 88년생 직접 찾아가서 깔끔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00년생 절실함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무난하다. 행운의 숫자 : 30, 97</p>	<p>戌</p> <p>34년생 발 빠르게 대응한다면 문제점이 해결 될 것이다. 46년생 급격한 변수가 보이니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58년생 원인과 과정을 잘 따져 보아야 대책이 마련 될 것이다. 70년생 하다가 조정하면 될 것이니 일단 시작해 놓고 볼 일이다. 82년생 상대의 사정부터 잘 파악해 보라. 94년생 지지 기반이 튼튼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2, 52</p>
<p>巳</p> <p>41년생 절대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53년생 관점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느니라. 65년생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라. 77년생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낫다. 89년생 걸음로는 그럴싸해도 속으로는 별 것이 없다. 01년생 여태까지 해 왔던 방식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행운의 숫자 : 04, 60</p>	<p>亥</p> <p>35년생 무서도 같은 바늘이 되는 법이다. 47년생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하는 것이 좋다. 59년생 낱알이 조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71년생 뜻밖의 인연이라면 예외의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느니라. 83년생 체면이나 허욕을 버리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95년생 뚜렷한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행운의 숫자 : 33, 69</p>